

“사업구조 재편으로 1兆 투자여력 발생… 원전사업에 투입”



두산에너지빌리티·밥캣·로보틱스 대표사 명의로 주주서한 게재 “주주들과 더욱 소통해 나갈 것”

5년간 체코원전 등 10기 수주 예상 SMR 사업, 62기 수주목표 초과 전망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그룹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약 1조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원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AI(인공지능) 및 무인화 기술을 비롯해 해외 네트워크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등 3개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일제히 주주서한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각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

주주서한은 지난 7월 11일 그룹이 내놓은 사업구조 재편 관련,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동안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두산 관계자는 “각 사 비즈니스 밸류

를 높여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사업 재편 방안인데 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이 나와서 여러 경로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다”며 “이번 사안의 가장 당사자인 주주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서한을 비롯해 주주들과 더욱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들은 서한에서 사업 재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호황으로 전례 없는 사업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산밥캣 분할 등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지면 발생하는 1조원 수준의 투자여력을 원전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는 서한에서 “체코 원전에 이어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등의 신규 원전 수주도 기대되면서 향후 5년 간 체코를 포함해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AI를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회사가 수립한 5년 간 62기 수주 목표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어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히고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밥캣 분할을 포함한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마치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차입금 7천억원 감소 ▲비영업용 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 5000억원 확보 등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박 대표는 “추가로 생기는 차입여력과 확보되는 5000억원의 현금 등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우려에 대해 박 대표는 “배당수익은 두산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며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는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율로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박 대표는 분할비율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기업가치와 주식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할 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주식수는 25% 감소하는 반면 기업가치는 10%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따라서 재상장 시점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식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산밥캣은 주력 사업영역인 건설, 조경, 농업, 물류 분야의 소형장비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가 이번 사업재편 추진의 배경임을 밝혔다.

스카박 두산밥캣 대표는 “양사 공통 영역인 인공지능 및 무인화·자동화 요소 기술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휴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기술확보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전문용 서비스 로봇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면서 “양사의 투자 프로세스를 일원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

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예정”이라 밝히며 배당과 관련해 “당사가 현재까지 실시해 온 배당정책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배당규모를 유지하고 통합법인의 사업적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밸류업’ 방안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두산밥캣과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의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밥캣과 통합하면 이 최대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현재 대비 약 3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두산로보틱스는 5년 내 매출 1조원 이상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개사 대표들은 주주서한에서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으며,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해서 현명하신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입을 모았다. /차현경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5 N’, 獨서 BMW보다 앞선 경쟁력 입증

아우토 자이퉁, 고성능차 비교평가 BMW M2와 5가지 평가항목 진행 아이오닉 5 N, 89점 차이로 제쳐

현대자동차가 독일서 고성능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자이퉁’에서 실시한 고성능차 비교테스트에서 BMW의 대표 고성능 내연기관 모델 ‘M2’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아우토 자이퉁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로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아우토 자이퉁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고성능차 비교평가는 고성능 전용 전기



현대차 아이오닉 5 N.

차 아이오닉 5 N과 내연기관 고성능 대표모델인 BMW M2, 2개 모델을 대상으로 ▲차체(Body) ▲주행 편의(Driving Comfort) ▲파워트레인(Powertrain) ▲역동적 주행 성능(Driving Dynamic) ▲친환경·경제성(Environment/Cost) 등 5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이오닉 5 N은 다섯가지 평가 항목 중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친환경·경제성 4개 항목에서 모두 앞서며 총점 2783점을 기록, M2(2694점)를 89점 차이로 제치고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역동적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 N의 전기차 특성 상 M2 대비 약

500kg 무거운 공차중량으로 인해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아우토 자이퉁은 아이오닉 5 N이 2.2톤에 달하는 공차중량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했다.

특히 아이오닉 5 N은 매우 사실적인 주행음과 더불어 정지상태에서 200km/h까지 단 11.3초만에 도달하는 동력성능은 매우 인상적이고, 이는 M2 대비 무려 1.2초나 더 빠른 기록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일상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가능케하는 서스펜션 세팅과 함께 넉넉한 공간감과 전기차 특유의 경제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내세워 아이오닉 5 N의 손을 들어줬다.

BMW의 준중형 2시리즈 기반의 고성능 모델인 M2는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6.1kg·m의 고출력을 갖추고

도 1.7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짧은 휠베이스 등을 적용해 특유의 민첩함을 자랑하는 고성능차로 유럽 시장에 정평이 나왔다.

아이오닉 5 N이 이와 같은 M2를 상대로 고성능차 비교평가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유럽 고성능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아이오닉 5 N은 N브랜드가 내놓은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며, 84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선정

전 세계 19개국 40개 外인 창업팀

전세계 19개국의 40개 외국인 창업팀이 한국에 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에 신청한 114개국, 총 1716개팀 중 국내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할 19개국,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인

바운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95개사의 국내 법인 설립과 364건의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 참여팀을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 114개국, 총 1716개팀이 신청하며 4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분야별로는 ▲IT&SW 11개팀(27.5%) ▲ESG&Green Tech 10개팀(25%) ▲Bio&Healthcare 6개팀

(15%)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창업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 22개팀(55%), 유럽 10개팀(25%), 아메리카 8개팀(20%) 순이다.

중기부는 9월부터 최종 선정팀을 대상으로 3개월 보름간 국내 엑셀러레이팅 및 참가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컴엑스 2024와 연계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 이중 상위 5개팀에게는 총 4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지급하고, ‘Top 20개팀’에는 국내 추가 엑셀러레이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I, 북미 석·박사 우수인재 확보 나서

‘Tech&Career 포럼’ 행사

삼성SDI가 북미 지역 석·박사급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SDI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캠브리지 호텔에서 올해 첫 ‘Tech & Career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Tech & Career 포럼’은 주요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석·박사급 인재 초청 행사다. 행사 가 열린 보스턴은 삼성SDI의 미국 내

첫 번째 연구소인 SDIRA(SDI R&D America)가 위치한 곳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배터리 혁신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최윤희 삼성SDI 사장과 참석자들 간의 대화 프로그램인 ‘비전(Vision) 토크’를 비롯해 연구소장의 키노트 스피치 등으로 이루어졌다.

최 사장은 비전 토크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대성 기자 iunm@